

# 광주·전남 10곳 중 2곳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22만6000여명... 전국 평균보다 높아 고령·비정규직 많아... 광주 17%·전남 17.6% '최저임금 미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광주·전남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 조항(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이 많아 노동 사각지대로 불린다. 좁은 공간과 자원과 함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민주노동연구원 등이 발표한 '5인 미만 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광주지역 51만 1000명 노동자 가운데 19.1%(9만7000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총 64만 9000명의 노동자 중 12만 9000명인 19.9%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소속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17.8%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특히 '고령'과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특징은 광주·전남에서도 비슷하다. 전국 비정규직은 223만 명(60.5%)으로 정규직 145만 4000명(39.5%)보다 1.5배 더 많았다. 광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5만 9000명으로 정규직(3만 9000명)의 1.5배에 달했다. 전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만 1000명으로 정규직(4만 8000명)의 1.68배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지역으로는 제주(62.8%), 전남(62.5%), 부

산(62.3%), 대구(61.5%), 경기(61.0%), 광주(60.3%) 등이 포함됐다. 2021년 상반기 전국 노동자 2억 64만 7000명 중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517만 4000명(25.1%)이다. 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35.2%), 전남(31.2%), 전북(30.1%) 등이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72만 6000명(13.4%)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20.5%), 제주(18.8%), 전남(17.6%), 전북(17.2%), 광주(17.0%) 순이었다. 광주·전남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체

에서 일하는 셈인 데다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낮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허술하지만 하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특히 중대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예외를 허용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사례도 흔해 사업주가 같아도 명의를 달리해 2곳이 같은 사업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세밀한 노동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verything will be OK!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이 화사한 빛의 꽃잎들로 형성된 영상물이 야간 도심에 수놓고 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한 '히치콕 A' (박서영, 유명상, 김신혜)가 제작한 'Everything will be OK'라는 이 작품은 5.18과 제주 4.3 사건, 미안마 사태 등을 일러스트로 제작해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진 국가 공권력 남용과 피해자들을 표현한 영상이다. 영상은 다음달 14일까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영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화순 백아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 육군 제31보병사단 개토식

6·25 전쟁 전·후 국군과 무장공비들이 격전을 벌였던 화순군 백아산 일대에 70여년 만에 유해발굴이 시작됐다. 23일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작업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방부 유해발굴단 조사발굴처장을 비롯한 군(軍) 관계자 60여 명과 화순군수 등 화순지역 7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백아산(해발 810m)은 6·25전쟁 시 인민군들

이 진지를 구축해 국군과 격전을 벌였던 곳으로, 미처 수습하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 조선노동당 전남도당 본부와 빨치산 전남 총사령부가 위치해 지속적으로 교전이 발생, 국군·경찰을 비롯한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호연단 총의대대 장병 65명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꾸려진 유해발굴팀은 오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화순군 백아산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펼친다. /정병호 기자 jusbh@

## "윤석열, 검찰 동원하면 군사독재 못지 않아"

### 광주 고교 교사 수업 중 발언... 시교육청, 진상 조사 나서

광주지역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 11일 수업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쪼저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 않게 된다", "윤석열이가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언 내용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또 이 민원인은 A 교사가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법과 원칙, 공정인데, 말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처럼 안 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역사 공부 좀 하면, 알면 못 찍는다"라고 말한 녹취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A 교사의 발언이 '교육의 중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초당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초당대학교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로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선발 및 입학 적절성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외국인 유학생 학업 생활 지원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중도탈락률 ▲유학생 공

인 언어능력 ▲유학생 만족도 관리 등이며, 초당대는 모든 지표를 충족해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초당대학교는 인증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 우대,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시 우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권 권한 부여, 대학원 입학예정자 전자비자 발급, 출입국 비자 심사 간소화, 체류 기간 연장 시 서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린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